

성경으로 확증하신 예수님의 부활(20260405)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13-27)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 기쁜 부활절에 마음을 울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작년 부활절 이후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만큼 능력 있게 나타났는가?

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다시 세워졌는가?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였는가?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목적은 단순한 사건 자체에 있지 않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절망과 포기 속에서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약 지난해에 맞이한 부활절과 오늘 드리는 부활절 사이에 우리 삶에 예수 부활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천 년 전에 일어난 부활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24장 배경 설명

누가복음 24장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으로 누가는 그분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 누가복음 24장은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제자들이 여인들의 증언과 빈 무덤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24:1-12절)

해결1: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24:13-35절)

해결2: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24:36-49절)

1) 문제: 불신과 무관심

24장 첫 부분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두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느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눅 24:8-12)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심지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았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과 무관심이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관심과 불신을 고쳐주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 나타나셨다. 그 첫 번째 나타나심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2) 문제해결1: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24:13-35절)

13절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을 ‘그날’이라고 말한다. 바로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베드로가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한 그날이다. 이들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11km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눅 24:24).

빈 무덤의 증인도, 천사의 증언도 있었으나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었으나 믿음이 없으니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불신과 무관심에 믿음의 빛을 비추신다. 우리는 이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불신의 시대, 예수에 대해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부활의 증거도 증언도 믿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당장 보여주실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을 증명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간단한 방법을 제쳐두고 그들의 눈을 가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신 후에 그들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셨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눅 24:31).

두 여인의 증언과 빈 무덤이라는 증거, 그때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야 함을 설명하실 때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처럼 자꾸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보여 주면 믿겠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을 수 없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은 곧 사라진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이제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보아서가 아니었다.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듯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듣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3) 문제해결2: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24:36-49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증거와 증언은 있으나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였다면 이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무지와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으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눅 24:38-41).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가르치신 방법 역시 성경이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4-45).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주셨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은 이제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된다. 믿는 자를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것이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맺음말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다. 주님이 풀어주신 성경 말씀이 차가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길 바란다.